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위해 산동대학교
파 견 기 간	16.03.02~16.12.30
학 과 및 학년	화학과 3학년
성 명	이창윤
제 출 일	17.01.25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16.03.02

학기종료: 16.12.30

방학:

학교주소: 중국 산둥성 위해시 산동대학교

산둥성에 위치한 작은 해안마을, 위해에 있는 산동대학교로 지원해 근 1년간 생활하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치면 제주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불릴만큼 깨끗하고 조용하지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 겨울철에는 다소 춥습니다. 습도는 굉장히 낮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건조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철엔 시원한 바람이 일품이지만 햇빛이 다소 강합니다. 학교 근처 국제해수욕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양한 외국인과 중국인들을 볼수있습니다. 음식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한국인도 많은만큼 한국음식 또한 많이 알려지고 시중에 팔고있습니다. 중국음식이 안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음식 드시면 됩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저는 위해지역에서만 1년 공부하게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하다온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그나마 위해 산동대학교의 어학 커리큘럼이 잘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어학당은 A반 B반 C반 세가지 단계로 나뉘며 제 생각으로 hsk급수로 따지자면 0~3급 A반, 3~4급 B반, 4~5급 C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 레벨테스트를 보게됩니다. 하지만 회화랑 급수는 또 다른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문법적인 부분은 잘하지만 회화가 안되서 일부러 반을 낮춰오시는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반 이동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본인이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C반의 수업조차 쉽게 느껴지시면 본과생들이 듣는 고급회화등 좀 더 난이도 있는 수업도 얼마든지 수강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별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습니다. 어학당 수업만 다 이수하면 중국학점으로 16학점, 우리 한남대 학점으로 12학점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공과목을 수강하시면 한남대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어관련학과이신 분들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니 따로 알아보주세요.)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제가 있을때 학교 내 기숙사 두 건물과 호텔 한 건물을 빌려 총 세 건물을 기숙사로 운용중이었습니다. 학교 내 위치한 기숙사는 4000위안, 호텔 건물은 5000위안이었습니다. 시설은 세 건물다 괜찮지만, 문락원이라는 곳은 다소 좁으며 문화원이라는 곳은 벌레가 자주 출몰합니다.. 겨울엔 조금 추운곳도 있습니다. 대신 4000위안입니다. 호텔건물은 따뜻하고 편안한 대신 학교와 다소 거리가 멀고, 5000위안입니다. 문락원, 문화원은 처음 입주시 보증금 300~500위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냉장고 비용도 별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해주시고 목돈을 준비해가셔야겠습니다. 가자마자 달라고는 안하니 현금이 위험하다 싶으시면 카드에 넣어가시면 됩니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생활비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카페 자주다니고 시내 자주 오다니면 물론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커피값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외에 다른 식비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학생식당에서만 해결한다면 정말 적은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 한달에 한국돈 30만원 잡았습니다. 책은 학교수업교재는 학교에서 구매하시고, 대신 hsk책등은 서점에 가도 단순 모의고사형 문제밖에 없으니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신분들은 한국에서 마련해가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은 가자마자 유심칩을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는 리엔통, 모바일차이나 두군데가 있고 그중 리엔통이 훨씬 괜찮습니다. 주황색간판입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한국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노래도 굉장하게 흘러나옵니다. 어쩔때 여기가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누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어 실력은 안 늘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갑니다. ☺ 대신 한국인들을 많이 접한 중국인들인 만큼 한국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덕분에 저같이 낮을 가리는 사람도 많은 중국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인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인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됩니다. 본인이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 얼마든지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편하다고 한국인들과 몰려다니면 유학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방학기간 빼면 8개월 남짓한 시간입니다. 눈깜짝하면 귀국일겁니다.

6.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정말 순식간에 유학생활이 끝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종일 고개만 쳐박고 공부하느라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을 못 사귀고 새로운 곳을 여행해보지 못 한게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은 회화와 hsk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회화는 정말 입을 열지않으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헛소리를 해도 중국어로 하세요, 중국 친구도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다 끝나는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를 만드세요. 단순히 숙제나 도움받고 회화상대로만 생각한다면 그 친구들도 다 느낍니다. 공부든 사람을 사귀는 일이든 진심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